

목포해상케이블카, 국내 첫 캐빈내 관광안내 서비스



방문객 서비스 향상 위해 55대 중 27대 시범 제공 상반기 전체 확대 예정...“관광인프라 개선 노력”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방문객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캐빈내에 GPS 기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월31일 밝혔다. 전체 55대 캐빈 중 우선 27대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 상반기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탑승객들은 복합과 고하도 2개 승강장에서 탑승과 동시에 캐빈 안에서 목

표 대표 관광지가 소개돼 지루함없이 주변경관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목포해상케이블카 측은 기대하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정인재 대표이사는 “이번 캐빈 내 GPS 관광안내 서비스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에 걸맞는 관광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관광 100선’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꼭 가볼만 한 대표 관광지를 추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봉 후 낭만항공 목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3월 2일~6월 30일까지

영광군은 오는 5일까지 ‘20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명을 모집한다. 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최근 3년 이내 타 재정지원사업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인원은 ▲ 흉농 작은 도서관 도서 관리, ▲관광지 시설물 및 공중화장실 관리, ▲꽃길 조성 및 관광지 환경정비 등 6개 사업 20명이다. 신청지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2월 5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합평군,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

합평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무이자 용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29일 밝혔다. 합평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군이 소상공인의 용자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합평군은 최근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 8개 금융기관(NH농협, 광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합의했다. 올해 군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용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재단이 군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고정이율로 용자금을 실행하면 군이 이자액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합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합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위 공인 받아

대한상의, 2020 기업환경 평가 우수지역 인증서·인증패 전달

목포시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주관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공식 인증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1일 박창수 목포시의장, 이한철 회장을 비롯한 목포상공회의소 임원들과 대양산단 및 산정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가 참

석한 가운데 대한상으로부터 ‘2020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목포시는 지난해 대한상의가 전국 6,000여개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수요에 맞춘 지원과 기업에 대한

입주환경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기업체감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는 대양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용지 매입부터 공장설립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업종배치, 신규업종 추가, 필지 분할 등 기업의 수요에 맞춘 분양활동

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설비투자금액을 지원하고 기업 입주 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기업수요에 맞춰 대양산단 해수배출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추진했다. 목포시의 이 같은 노력으로 대양산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의 분양문의가 대폭 증가하며 올해 2월 현재 89%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대양산단 뿐만 아니라 산정농

공단지, 세라믹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선박수리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힘쓰고 있다. 김종식 시장은 “이번 평가는 목포에 기업 환경과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목포 소재 기업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라 더욱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영암군-영암한국병원 협약 체결

군민 건강증진·질병예방 도모

영암군은 1일 군청 남산실에서 영암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영암군과 영암한국병원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영암한국병원은 영암군민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와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신속한 치료와 편의를 제공하고, 영암군에서는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번 협약식은 영암군과 영암한국병원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내에 의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는 상생협력의 첫 걸음으로 그동안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인 영암군이 응급실을 운영하여 야간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신안군, 군민 누구나 코로나19 무료검사

최근 무증상 감염자의 수가 증가해 더 많은 바이러스 전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안군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읍·면 보건지소·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군에서는 군민들에게 타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광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방문한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원할 경우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회산백련지 ‘스마트 온실 체험장’ 개관

4200만원 사업비 투입해 491㎡ 규모로 조성



무안군은 일로읍 회산백련지 내 마트 온실 체험장을 조성·개관했다고 1월31일 밝혔다.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91㎡ 규모로 조성된 체험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제어시설 관리와 내·외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 곳은 작물에 필요한 양액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양액배 시스템과 갖춰져 있어 인근 농업인과 관광객들에게 농업의 배움과 수확의 즐거움을 주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딸기 500주가 식재돼 재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딸기 외에 계절별로 토마토, 양파 등 작물을 재배하고 다양한 화초로 내부를 조경해 관광객들에게 자연 치유의 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